부산진구 부암1동 주민자율방역단(회장 이태용)은 5월 14일(화) 주민센터에서 「하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발대식」을 개최하였다.이날 발대식에는 주민자율방역단 회원, 부산중앙새마을금고, 동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주민자율방역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하절기를 맞아 하수구, 공·폐가 등 취약지 중심으로 5월~10월(6개월)까지 주1회 이상 집중 분무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부산중앙새마을금고(이사장 박수용)에서는 주민자율방역단의 원활한 방역 활동 수행과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방역활동비 300만 원을 후원하였다.이태용 회장은 “감염병 없는 건강한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